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전국경공업대회에서 하신 연설

신군조선의 자주적준엄과 불패의 위력을 만천하에 과시하며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있는 때에 전국경공업대회가 열린것은 매우 의미깊은 일입니다.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경공업부문과 연관부문의 근로자들과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기회에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요구에 맞게 경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경공업전선은 농업전선과 함께 현시기 경제강국 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화력을 집중해야 할 주타격방향입니다.

우리는 지난해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를 성과적으로 발사한데 이어 제3차 지하핵시험을 성공시킴으로써 자주와 정의의 한길로 역세계 전진하는 조선인민의 불굴의 기상과 백두산대국의 종합적국력을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습니다.

우리는 세계가 공인하는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당당한 핵보유국이 된 우리 조국을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사회주의락원으로 만들어야 하며 그러자면 농업전선과 함께 경공업전선에 힘을 집중하여 승리의 돌파구를 열어제쳐야 합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주를 정복하고 핵시험을 성공시킨 기세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진군을 다그치는 우리 당과 인민의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침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이고있습니다.

적들의 무모한 불장난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첨예한 정세가 조성된 속에서도 당중앙은 전국경공업대회를 열도록 하였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새 전쟁을 막고 평화적인 환경에서 경제건설을 다그쳐 인민생활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립장입니다.

이번 대회는 신군의 총대에 의거하여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수호하면서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로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인민의 락원을 건설하려는 우리 당의 드립없는 신념과 의지를 똑똑히 보여줄것입니다.

당중앙위원회는 경공업전선에서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의 포성을 크게 울리고 경공업에서 타오른 혁신의 불꽃이 농업과 경제전반에 새로운 비약의 거세찬 불길을 지피는 불씨가 되게 하려는 의도에서 이번 전국경공업대회를 매우 중시하고있습니다.

나라의 경공업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것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람찬 사업인 동시에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생활력을 과시하고 당과 인민의 일심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지며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앞당기기 위한 중대한 정치적사업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준엄했던 고난의 행군시기로부터 생애의 마지막날까지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치시어 마련해주신 현대적인 경공업토대는 우리가 승리의 주로를 따라 질풍같이 내달릴수 있는 훌륭한 롱마이며 이 롱마를 잘 타기만 하면 경제강국의 령마루를 단숨에 점령할수 있습니다.

풍부한 잠재력과 확고한 기초를 축성한 경공업의 모든 분야에서 비약의 불길이 솟아오를 때 인민들의 생산적열의와 전투적사기는 더욱 충천하고 경제



전반에 새로운 박차가 가해질것이며 시대를 들었다 놓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것입니다.

경공업부문의 모든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당의 의도를 똑똑히 알고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울리는 경공업의 거세찬 동음으로 적들의 《제재》책동을 짓부셔버리고 조선은 결집하면 한다는것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현시기 경공업부문에서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심과업은 이미 마련된 생산잠재력을 최대한 남김없이 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이며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추진하여 우리의 경공업을 세계선진수준에 올려세우는것입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무엇보다도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 갖가지 질 좋은 인민소비품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 나라에 마련된 경공업토대는 튼튼하며 이미 있는 공장, 기업소들을 만부하로 돌리면 우리 인민들의 생활상요구와 기호에 맞는 여러가지 소비품들을 기본적으로 보장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경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과 상임봉사기관들을 현지도도하실 때마다 시제품이나 견본품을 만들어 전시하거나 상점에 진열하는데 그치지 말고 생산을 정상화하여 실지 인민들에게 차례지게 할데 대하여 간곡히 당부하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공업공장들에서는 생산을 정상화할데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고있습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는것을 선차적인 과업으로 틀어쥐고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소비품들을 다량생산하며 특히 기초식품과 1차소비품생산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에서 생산계획을 수행한다고 하면서 생산량에만 치중하고 소비품의 질을 출시하는 그릇된 경향을 철저히 경계하여야 합니다.

우리 인민들의 문화적수준과 생활상요구는 날로 높아지고있으며 인민들이 쓰려고 하지 않는 질이 낮은 소비품은 아무리 많이 생산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경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소비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된바람을 일으켜 인민들의 호평을 받는 필수품, 자기 단위를 상징하고 대외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제품을 생산하여야 합니다.

경공업은 생산순환주기가 짧고 생산물이 빨리 소비되는 특성으로 하여 원료, 자재를 원만히 보장하는 문제가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요구로 나섭니다.

경공업원료, 자재문제를 해결하자면 당면하여 인민생활자금을 보장하게 되어있는 단위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중공업의 위력도 인민들의 생활에서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단천지구 광산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똑 떼어 전적으로 인민생활자금을 보장하는데 부무하도록 해주시였으며 이 지구 광산, 기업소들을 개건하고 단천항까지 건설하도록 하시였습니다.

인민생활자금을 보장하게 되어있는 단위들에서는 경공업발전의 전초선을 지켜선 책임감을 깊이 간직하고 생산을 대대적으로 높이며 생산과 수출의 일체화를 실현하고 다른 나라들과의 가무무역을 확대 발전시켜야 합니다.

경공업원료, 자재문제를 풀기 위한 근본방도는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는것입니다.

지금 경공업부문에서 심각한 문제의 하나가 원료, 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은것입니다.

우리는 경공업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경공업발전의 중자로,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끝장을 볼 때까지 완강하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경공업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는데서 화학공업이 큰 몫을 담당하고있습니다.

화학공업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경제조직 사업을 짜고들어 질 좋은 섬유와 수지, 각종 기초화학제품들을 원만히 생산보장하여야 합니다.

인민소비품생산을 높는데서 지방공업을 발전시키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의 형편에서 지방산업공장들을 잘 돌려도 인민생활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지방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경공업발전의 한쪽수레바퀴를 밀고나간다는 자각을 가지고 군의 역할을 높이고 지방경제를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데 대한 력사적인 창성면석회의정신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철저히 구현하여야 합니다.

위대한 수령님 과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중앙공업공장들과 지방산업공장들사이에 자매관계를 맺고 서로 도와줄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였습니다.

중앙공업공장들은 지방산업공장들이 자체로 해결하기 힘든 설비와 부족품, 원료와 자재문제를 풀어주고 기술적으로 잘 도와주어 지방산업공장들에서 중산의 동음이 높이 울려나오도록 하여야 합니다.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소비품생산에 크게 기여한 훌륭한 력사와 자랑스러운 전통을 가지고있는 우리의 지방공업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오늘의 대진군에서도 자기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여야 할것입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다음으로 현대화, 과학화를 실현하는것을 중요한 과업으로 틀어쥐고 높은 단계에서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최근년간 현대적인 경공업공장들이 많이 건설되었지만 우리 나라 경공업의 현대화수준은 아직 뒤떨어져있습니다.

경공업부문에서 현대화, 과학화를 힘있게 다그치는것은 생산을 높이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나라의 전반적경공업을 새로운 과학기술적토대우에서 활력있게 전진시키기 위한 기본열쇠입니다.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세계를 디디고 올라서겠다는 만만한 투지와 높은 민족적자존심을 가지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퍼주신 새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 최첨단들과의 열풍을 더욱 세차게 일으키며 생산설비와 공정의 현대화와 경영활동의 과학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박차를 가하여야 합니다.

지금 있는 경공업공장들의 낡고 뒤떨어진 설비와 생산공정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으면서 전망적으로 첨단수준의 설비와 생산공정을 갖춘 현대적인 인민소비품생산기지를 많이 건설하여야 하였습니다.

생산능률이 낮은 설비들과 손로동이 많은 생산공정들을 현대적으로 개조하기 위한 단계별목표를 높이 세우고 완강하게 실천하여 가까운 기간에 경공업부문의 모든 공장, 기업소들의 면모를 일신시켜야 합니다.

현대화가 일정하게 실현된 공장들에서도 이미 이룩한 성과에 만족하지 말고 설비와 생산공정을 최첨단기술로 장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리며 특히 령도업적단위들이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실현하는데서 앞장서나가야 합니다.

공장들을 현대화한다고 하여 남의것을 쳐다보면서 많은 외화를 들여 설비들을 다른 나라에서 사들여오려고만 하는 편향을 없애야 합니다.

과학기술로 발전하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살아가는 현시대에는 소비품생산분야에서도 과학화수준을 끊임없이 높여나갈것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경공업부문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이 현대경공업의 발전추세에 맞게 과학자, 기술자들을 생산에 적극 인입하여 제품생산과 설계, 설비관리와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도록 하여야 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전국경공업대회에서 하신 연설

(1 면 에서 계속)

모든 경공업공장, 기업소들에서 과학기술력량을 튼튼히 꾸려 새 제품개발능력을 높이며 대중적기술 혁신운동을 활발히 벌려야 합니다.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전국적운동으로, 전사회적인 사업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은 중증의 창발성을 발동하고 내부예비를 동원리용하여 다양한 소비품을 생산할 수 있게 하는 폭넓은 대중운동이며 그 정당성과 생활력은 이미 실천을 통하여 뚜렷이 입증되었습니다.

1980년대처럼 8월3일인민소비품생산운동을 활발히 벌려 갖가지 질 좋은 소비품들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어느 부문, 어느 단위를 막론하고 기본제품생산과 생활필수품생산을 다같이 밀고나가 맵시있고 쓸모있는 각종 소비품들을 생산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이 용을 쓰며 앞장에서 힘차게 내달리고 온 나라가 발을 맞추어 인민소비품생산을 불길을 세차게 지퍼올린다면 가까운 기간에 인민생활을 획기적으로 높일려는 당의 구상은 현실로 꽃피어날 것입니다.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는 것과 함께 인민봉사사업을 개선하는데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인민봉사부문에서는 봉사활동을 창발적으로 다양하게 벌리며 봉사성을 높여 인민들의 편의와 리익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합니다.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상업, 금양, 편의봉사망들을 현대적으로 꾸리고 그 운영방법을 혁신하며 상품확보와 원자재보장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경공업공장들과 상업봉사기관들에서는 생산된 제품이 비법적으로 거래되는 현상을 없애고 인민들에게 더 많은 소비품이 차례지게 하여야 합니다.

경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인민생활을 빨리 향상시키자면 경공업부문 일군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당은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믿고 가까운 시일안에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킬데 대한 결심과 의지를 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일군들이 당정책에 대한 결사관철의 정신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이악하고 박력있게 밀고나가면 오늘의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인민소비품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일수 있습니다.

지금 제일 문제로 되고있는것은 우리 일군들이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이 잘되지 않는데 대하여 책임을 심각히 느끼지 않고 패배주의에 빠져 애써 노력하지 않고있는것입니다.

경공업부문의 일군들은 잠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어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의 주타격방향을 담당한 지휘정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여야 합니다.

경공업부문 일군들은 자기 부문, 자기 단위의 사업은 자기들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립장과 자세에서 모든 사업을 조직진행해나가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의 성, 중앙기관 일군들은 경공업의 전반적실태와 아래단위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 장악한데 기초하여 걸린 문제를 풀고 경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경공업부문 일군들은 경직과 도식, 침체와 부진을 배격하고 참신하고 탄력있게 일하며 합리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세워 자체의 힘으로 확대재생산을 실현하고 생산을 활성화해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일군들속에서 나타나고있는 수입병은 경공업발전의 걸림돌로 되고있습니다.

지금 일부 일군들은 생산을 활성화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려는 생각보다 다른 나라에서 상품을 들여다 팔아 돈을 벌 생각을 앞세우고있습니다.

일군들은 열렬한 애국심을 지니고 자기의것을 귀중히 여기며 남의것보다 더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경공업부문 과학자, 기술자들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현시기 경공업발전을 추동하는 중요한 담보로 됩니다.

경공업과학분원과 경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은 우주정복자들의 개척정신과 투쟁기풍을 따라 배워 나라의 경공업과학기술을 하루빨리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겠다는 굳은 각오와 높은 목표를 가지고 분발하여야 합니다.

과학자, 기술자들은 현행생산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제때에 푸는것과 함께 경공업원료의 국산화를 실현하고 기계설비와 생산공정용 CNC화, 무인화하기 위한 혁신적인 안들을 연구완성하며 새로운 경공업제품과 기능성제품들을 더 많이 개발하여야 합니다.

전국가적으로 경공업을 중시하고 경공업발전에 큰 힘을 넣어야 하였습니다.

경공업은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과 밀접히 련관되어있으며 경공업의 발전은 련관부문들이 경공업을 어떻게 도와주고 떠밀어주는가 하는데 크게 달려있습니다.

오늘 경공업을 대하는 관점과 립장은 인민에 대한 관점과 태도, 당을 받드는 자세와 립장을 보여주는 척도로 됩니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단위들에서 최단기간에 인민생활에서 전환을 일으키려는 당의 의도를 명심하고 경공업부문을 적극 도와주어야 합니다.

경공업을 빨리 발전시키기 위하여서는 당조직들의 역할을 높여야 합니다.

도, 시, 군당조직들과 경공업부문의 당조직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경공업발전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이며 당의 경공업방침을 관철하는데 당사업의 화력을 집중하여야 합니다.

지금 일부 당조직들에서는 당의 방침이 제시되면 초기에는 벽적 뚫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집행을 쫓아버리는 편향이 나타나고있는데 이런 오분열 도식일본새를 없애야 합니다.

경공업부문의 당조직들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김정일에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모든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도록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합니다.

자력갱생은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전통이며 인민생활향상대진군을 추동하는 위력한 무기입니다.

일군들과 근로자들속에서 빈터우에 자립적인 경공업기지를 일떠세운 전세대들의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영웅적투쟁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려야 합니다.

당조직들은 녀성근로자들이 많은 경공업부문의 특성에 맞게 후방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고 생활상대로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풀어주어 그들이 더 높은 열의를 가지고 일을 잘해나가도록 하여야 하였습니다.

도, 시, 군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은 경공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당 지역안의 중앙경공업공장과 지방산업공장, 인민봉사단위들의 실태를 정상적으로 알아보며 걸린 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주도록 하여야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애로와 난관은 적지 않지만 경공업발전전망은 확고합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한생을 바쳐 마련하여놓으신 경공업의 튼튼한 토대가 있으며 당의 령도에 끝없이 충직한 인민이 있는 한 경공업발전에서는 전환이 일어나고 우리 인민들은 반드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될것입니다.

당중앙위원회는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승리의 신심드높이 떨쳐일어나 경공업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리라는것을 굳게 믿습니다.

전국경공업대회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고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전국경공업대회가 18일 평양에서 성대히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조선로동당의 경공업정책 관철에 앞장선 단위 일군들과 로력혁신자들, 중앙과 지방의 책임일군들, 경제지도기관, 련관부문 일군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대회에 참석하시었다.

전체 참가자들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을 진두지휘하시는 속에서도 인민생활향상을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의 리상을 찬란한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만세!》의 환호와 열광적인 박수갈채를 터쳐올리었다.

대회는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최영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 총리가 보고를 하였다.

보고자는 오늘 우리는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력사적인 신년사와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우주를 정복하고 핵보유국의 위용을 떨친 기세로 강성국가건설의 전환적국면을 열어나가고 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전국경공업대회를 가지게 된다고 하면서 이번 전국경공업대회는 경공업발전에 쌓아올린 우리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새로운 리정표를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말하였다.

그는 우리 나라 경공업의 발전력사는 이인위천을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인민생활향상을 당과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신 절세위인들의 주체적인 경공업건설사업과 탁월한 령도, 불변불휴의 헌신과 로고의 력사라고 하면서 한없이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을 지니시고 탁월한 사

상과 세련된 령도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만년토대를 마련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혁명적은 길이 빛날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적인 경공업건설사상과 불멸의 령도업적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현시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우시고 평양양말공장과 평양아동백화점, 류경원을 비롯한 경공업공장들과 인민봉사단위들을 정력적으로 현지지도하시며 인민소비품생산과 봉사활동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 주시었다고 말하였다.

그는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최우선, 절대시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빛나게 관철하도록 하시고 우리 식 사회주의의 본래를 끝없이 빛내여가고계신다고 하면서 우리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 기간 경공업부문사업에서는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나라의 경공업이 상승계도에 올라설수 있는 확고한 전망이 열려지고 경공업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경제건설의 주타격방향을 맡았다는 자각을 지니고 일터마다에서 순결한 량심과 애국의 땀을 바쳐가고있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라고 하면서 그는 전체 대회참가자들과 온 나라 경공업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의 열화같은 충정의 마음을 담아 주체경공업의 창시자, 건설자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영원무궁한 영광을 드리며 인민의 찬마가지 리상을 현실로 꽃피워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린다고 말하였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철



저히 관철하여 경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고 하면서 그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경공업발전을 위한 총공격전을 힘있게 벌려 공화국창건 65돐과 전승 60돐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고 인민생활에서 끊임없는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선군령도가 있고 천만군민의 일심단결과 무적의 군력, 강위력한 자립적 민족경제의 토대가 있기에 우리는 배심든하며 승리는 확정적이라고 하면서 그는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들어 경공업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환을 일으키며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

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가자 고 호소하였다.

대회에서는 토론들이 있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 경공업건설의 강령을 휘황히 밝혀준 불멸의 대강을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크나큰 격정에 넘쳐 《만세!》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대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올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었다. 대회는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3월 19일 전국경공업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활영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사회주의조국수호의 전면대결전을 진두지휘하시는 속에서도 친히 전국경공업대회를 마련하여주시고 몸소 대회에 참석하시어 강령적인 연설을 하시였으며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전국경공업대회는 경공업전선에서 인민

생활향상대진군의 포성을 크게 울리고 경공업에서 타오른 혁신의 봉화가 농업과 경제전반에 새로운 비약의 거세찬 불길을 지퍼올린 대회였다고 하시면서 높은 열의와 적극적인 참가일에 자기 사업을 원만히 수행한 대회참가자들을 열렬히 축하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인민생활향상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경공업부문과 련관부문의 근로자들과 일군들, 과학자, 기술자들이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요구에 맞게 경공업을 발전시키는데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혁명적본분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초정밀무인타격기의 대상물타격과 저공으로 래습하는 《적》순항미사일을 소멸하는 자행고사로켓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공화국을 기어아 압살하려고 미처날뛰는 적들의 불장난소동으로 하여 전쟁전야의 침예한 정세가 도래한 때인 3월 20일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초정밀무인타격기의 대상물타격과 저공으로 래습하는 《적》순항미사일을 소멸하는 자행고사로켓사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감시소에서 훈련진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다음 훈련을 시작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였다.

먼저 초정밀무인타격기들이 세찬 화염을 내뿜으며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계획된 장거리비행을 마친 초정밀무인타격기들이 《적진》을 향해 기수를 돌리며 무자비하고 버락같은 돌입으로 목

표들을 정확히 타격소멸하였다. 쌓안경으로 초정밀무인타격기들의 타격모습을 주의깊게 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초정밀무인타격기들이 속도가 빠르며 목표식별능력이 대단히 높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 초정밀무인타격기들의 비행항로와 시간을 적 대상물들이 도사리고있는 남반부상공까지의 거리를 타산하여 정하고 목표타격능력을 검열해보았는데 적들의 그 어떤 대상물들도 초정밀타격할수 있다는것이 확증되었다고 하시며 대만족을 표시하시였다.

이어 저공으로 래습하는 《적》순항미사일에 대한 자행고사로켓사격이 시작되었다.

훈련장상공에 적의 《도마호크》순항미사일로 가상의 목표가 날아들었다. 순간 천지를 진감하는 폭음소리와 함

께 번개같은 불줄기가 하늘을 가르며 날아가 저공으로 래습하는 《적》순항미사일을 단방에 박살냈다.

화력진지들에서 터져오르는 《만세!》의 함성소리가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울려 퍼졌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명중이요, 정확히 단발에 명중했소, 통쾌하게 명중했다고 하시면서 자행고사로켓에 대한 성능검열도 만족하게 평가한다고 높이 치하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오늘 자기의 위력을 시위한 초정밀무인타격기와 자행고사로켓들의 성능을 더욱 높여 임의의 순간에 임의의 대상물들을 초정밀타격할수 있게 만단의 준비를 갖추게 대하여 지시하시였다.

적들의 그 어떤 사소한 형태의 전쟁 연습소동과 도발행위도 우리에게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으로, 도전으로 간주하고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 조선인민군의 결사의 의지를 과시한 훈련은 가슴후련하게 끝났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훈련이 그대로 싸움으로 이어진다면 분노한 백두산혁명강군의 복수의 타격에 원수들은 다시는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보지 못하게 된맛을 토틈히 보게 될것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적들이 우리 인민군대의 무진막강한 위력을 망각하고 감히 움쩍하기만 한다면 남반부작전지대의 군사대상물들과 괴뢰반동통치기관들은 물론 미제의 반공화국침략전쟁책동에 편승하는 추종국가의 관련시설들과 태평양작전지대의 미제침략군 군사기지들까지 초토화할데 대한 명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제는 말로 하던 때는 지나갔다, 이제 당장이라도 싸움이 벌어지

면 원수들을 사정을 보지 말고 짓이겨버리라, 항복서에 도장을 찍을 놈도 없게 모조리 쓸어버리라고 단호히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식의 초정밀무인타격수단들로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대상물들을 집타격할수 있게 남반부작전지대의 적대상물표표들을 빠짐없이 장악하여 무인타격수단들에 입력시켜놓을데 대하여서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인민군대의 싸움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전체 인민군장병들이 고도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 최고사령관의 조국통일대진군명령을 기다릴데 대하여 다시금 강조하시면서 훈련을 성과적으로 진행한 장병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공화국 인민들속에서 즐거 불리워지는 애창곡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에는 온 나라 가정의 행복을 지켜, 사랑의 요람 지켜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는 구절이 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라 생의 마지막 막시가지 야전부차원으로 전진시찰을 걸으신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을 간절히 그리며 온 나라 인민의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진 노래이다. 이 노래가 오늘을 위대한 원수님께서서

전선시찰을 이어가시며

일대전의 첫 포성, 신호탄을 쏘아올리라고, 적들이 예민한 수역에서 우리를 또다시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망동질을 해낸다면 천군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전 전선에서 정의 조국통일대진군을 개시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셨다고.

강인확대한 배짱과 승리에 대한 확신에 넘치신 그의 모습은 조국이 존엄한 시련을 겪던 지난 세기 90년대 철령과 오성산, 판문점과 초도를 찾으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과

같이 되기를 세계는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지나는 인류전쟁사에서 또는 언제나 주요무기로 되어왔고 그 중요성과 역할은 나날이 더욱 커져왔다. 오늘에 와서 또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기본무기의 하나로 되고있다. 현대전은 말그대로 포병전이며 포병싸움준비이자 군대의 싸움준비이다. 모두에게 통쾌한 승리의 쾌감을 느끼게 한 이번 조선인민군 포병구분대들의 실탄사격훈련은 인민군대의 싸움준비가 얼마나 최상의 수준에서 완비되어있는가를 세계가 똑똑히 알게 하였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다. 그러나 이 땅의 봄 계절은 평온하게만 흐르지 않는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 세력들이 공화국을 겨냥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까지 벌리면서 북침전쟁책동에 광분하고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장제도와 무도, 월내도

를 련이어 시찰하시였다. 판가리전면대결전의 불꽃이 제일먼저 타번질 최전방 섬초소에서 그이께서는 선언하시였다.

장제도방어대와 무도영양 방어대 군인들은 적들의 일거일동을 경각성있게 주시하고있다가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하면 수역 또는 지역에 대한 반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진다며 지체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조국통

일대전의 첫 포성, 신호탄을 쏘아올리라고, 적들이 예민한 수역에서 우리를 또다시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망동질을 해낸다면 천군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전 전선에서 정의 조국통일대진군을 개시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셨다고.

강인확대한 배짱과 승리에 대한 확신에 넘치신 그의 모습은 조국이 존엄한 시련을 겪던 지난 세기 90년대 철령과 오성산, 판문점과 초도를 찾으신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모습과

같이 되기를 세계는 똑똑히 보게 될것이다. 지나는 인류전쟁사에서 또는 언제나 주요무기로 되어왔고 그 중요성과 역할은 나날이 더욱 커져왔다. 오늘에 와서 또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기본무기의 하나로 되고있다.

현대전은 말그대로 포병전이며 포병싸움준비이자 군대의 싸움준비이다. 모두에게 통쾌한 승리의 쾌감을 느끼게 한 이번 조선인민군 포병구분대들의 실탄사격훈련은 인민군대의 싸움준비가 얼마나 최상의 수준에서 완비되어있는가를 세계가 똑똑히 알게 하였다.

공화국의 무서운 포병일제타격을 두고 남조선의 《세계일보》는 이렇게 전하였다. 《전정발발이후 24시간 이내 수도권 시민과 (국군), 주 (한) 미군을 포함한 사상자가 230여명에 달하는것으로 추산됐다. 전쟁이 발발하면 북은 개전초기 1만 3000여명의 포로 시간당 50만발의 포탄을 쏟아부울것으로 예측했다. 서울은 물론 수원까지 타격이 가능한 북의 장사정포는 전쟁초기 시간당 2만 4000여발을 수도권에 퍼부을수 있다. 북의 (서울불바다) 발연도 바로 이런 상황을 넘어서는것이다.》

만일 적들이 공화국의 자주권을 행사하는 령해, 명공, 명도를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상상할수 없는 포리일제타격이 원수님의 이상을 짓밟아버릴것이다.

적격무기로부터 각종 포와 땅크, 장갑차, 함선과 비행

기 반미성전의 나날 최전선에서 계시며 (최강)을 떠드는데서 미국과 연합세력을 타격하시며 세계가 알지 못하는 진승의 기적을 창조하시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준엄한 시련의 시기 초강도강행군으로 미국의 반공화국압살책동을 제압하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신것처럼 오늘 원수님께서서는 최전선, 최전방의 전진길을 끊임없이 걸으시며 적대세력의 파괴의 전면대결전을 진두지휘 하고계신다.

불을 즐기고 인민이 오히려 공포를 느끼는 것은 다른 약이 없다. 무자비한 총대맛만이 명망이다. 우리 대학안의 전체 청년학생들은 학업에 전념할뿐 아니라 일단 보복성전의 기회가 온다면 한사람같이 펜을 총과 바꾸어치고 용약 전선에 달려나갈 자세로 마음과 전력을 집중하고있다. 그 길에 자기의 희망을 이루며 교정을 지키고 조국을 지키는 성스러운 길인것이다.》

김철주시범대학 학부장 리순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추구하는 반공화국(제제)나 정치군사적위협공갈을 비롯한 온갖 대조선 적대시책은 단순히 우리 공화국의 위상이나 핵무기를 막자는데만 있는것이 아니라, 그들이 궁극적으로 원수님의 존엄과 전철을 비롯한 부정부정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는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이며 우리의 존엄이고 생명인 사회주의체제를 허

위대한 령장을 모시여 우리는 이긴다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각계층 인민들의 흠모와 칭송의 목소리

열렬한 조국애와 결연한 반제자주 정신을 지니시고 오늘의 전면대결전을 승리로 이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군대와 각계층

인민들의 흠모와 칭송의 목소리가 날 더욱 높아가고있다. 조국수호전의 전열을 종횡무진하시며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탁월한 지략과 명군술로

《련속적인 공격적진으로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의 섬방어대와 서부전선 최대열점지역의 전초기지인 월내도방어대를 시찰하고 대연평도, 백령도타격에 임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의 실전능력관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을 지도하시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신문과 TV로 보오면 사회의 령장을 모신 무한한 감격과 기쁨, 승리에 대한 크나큰 확신으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였다.》

전선부대들을 비롯한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로켓군 장병들이 우리 식의 전면전을 개시할 만단의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시면서 적들이 예민한 수역에서 우리를 또다시 조금이라도 건드리는 망동질을 해낸다면 천군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전 전선에서 정의 조국통일대전을 개시할데 대한 명령을 하달하셨다고 하신 원수님의 말씀에서 나는 인민군대의 포화력에 초토화될 가중스러운 적의 참패상을 눈앞에서 보는듯싶었다.

정말 힘이 솟는다.》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회실장 김주현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선시찰소식은 온 나라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고 전철 인민을 조국수호성전으로 불러일으키는 백승의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지난 세기 때를 돌리시며 우리들을 이끌어주시고 오를 줄 모르는 아이들을 밝고 명랑한 아이들의 모습에서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에는 온 나라 가정의 행복을 지켜, 사랑의 요람 지켜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는 구절이 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라 생의 마지막 막시가지 야전부차원으로 전진시찰을 걸으신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을 간절히 그리며 온 나라 인민의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진 노래이다. 이 노래가 오늘을 위대한 원수님께서서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에는 온 나라 가정의 행복을 지켜, 사랑의 요람 지켜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는 구절이 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라 생의 마지막 막시가지 야전부차원으로 전진시찰을 걸으신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을 간절히 그리며 온 나라 인민의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진 노래이다. 이 노래가 오늘을 위대한 원수님께서서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에는 온 나라 가정의 행복을 지켜, 사랑의 요람 지켜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는 구절이 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라 생의 마지막 막시가지 야전부차원으로 전진시찰을 걸으신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을 간절히 그리며 온 나라 인민의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진 노래이다. 이 노래가 오늘을 위대한 원수님께서서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에는 온 나라 가정의 행복을 지켜, 사랑의 요람 지켜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는 구절이 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라 생의 마지막 막시가지 야전부차원으로 전진시찰을 걸으신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을 간절히 그리며 온 나라 인민의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진 노래이다. 이 노래가 오늘을 위대한 원수님께서서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에는 온 나라 가정의 행복을 지켜, 사랑의 요람 지켜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는 구절이 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라 생의 마지막 막시가지 야전부차원으로 전진시찰을 걸으신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을 간절히 그리며 온 나라 인민의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진 노래이다. 이 노래가 오늘을 위대한 원수님께서서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에는 온 나라 가정의 행복을 지켜, 사랑의 요람 지켜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는 구절이 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라 생의 마지막 막시가지 야전부차원으로 전진시찰을 걸으신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을 간절히 그리며 온 나라 인민의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진 노래이다. 이 노래가 오늘을 위대한 원수님께서서

싸움준비길을 알린 포사격훈련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에는 온 나라 가정의 행복을 지켜, 사랑의 요람 지켜 아버지는 전선에 계신다는 구절이 있다.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굳건히 수호하시라 생의 마지막 막시가지 야전부차원으로 전진시찰을 걸으신 위대한 김정은원수님을 간절히 그리며 온 나라 인민의 절절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진 노래이다. 이 노래가 오늘을 위대한 원수님께서서



아이들과 함께 있는 리정선원장 (가운데)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정의의 통일애국성전에 총결기하여 도발자들의 전쟁책동을 단호히 짓부시자

전 체 조 선 민 족 에 게 고 함

해내의 전체 조선동포들!
지금 조선반도에는 전쟁전야의 준엄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적대세력의 반공화국 《제재》소동이 극도에 이르렀고있는 가운데 남조선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는 미제침략군과 괴뢰군의 대병력과 최신핵전쟁장비들이 총동원된 광란적인 《키 리졸브》, 《독수리》북침 핵전쟁연습이 최극단으로 치달고있다.
미국과 괴뢰패당의 무분별한 도발과 전쟁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정세는 이미 수습할 수 없는 위험계선을 넘어섰으며 이제 불과 불, 철과 철이 오가는 최악의 물리적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실로 조선반도에 오늘과 같은 심각한 핵전쟁위기가 들이닥친적은 일찍이 없다.
조성된 정세에 대처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수적멸의 전면대결전에 산악같이 일떠섰다.
우리의 전면대결전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정의의 싸움이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이 거제의 기쁨이고 궁지인 《광명성-3》 2호기의 발사성공에 대해 도발을 걸어온것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이며 극악한 도전이다.

그것은 반공화국적대책과 침략책동의 집적증거로이다.
국제적으로 공인된 위성발사를 우리가 하면 안되고 저들은 핵을 마음대로 휘둘러도 우리는 핵을 가져서는 안된다것이야말로 우리 공화국의 강성병영을 가로막으며 나아가 우리를 무장해제하여 집어삼키자는 날장도적행포의 극치이다.
침략과 전쟁의 원흉인 미국과는 말이나 진실이 통하지 않는다.
침략전쟁에는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으로, 핵전쟁도발에는 더 위력한 핵보복타격으로! 이것이 적대세력과 호전광부리들에 대한 우리 천만군민의 단호한 대답이며 멸적의 의지이다.
그것은 미국과의 백년대결전에서 우리가 얻은 최종결론이기도 하다.
우리가 위대한 선군의 기치밑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무적필승의 혁명강군을 건설하고 세계적인 우주강국, 핵보유국으로 추주쳐온것은 바로 그런 역사적교훈에 기초한 민족자존심의 분출이다.
우리 민족은 이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무서울것이 없으며 우리 민족을 건드릴자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다.
우리의 전면대결전은 온갖 불의가 판을 치

는 불법무도의 거꾸로 된 세계질서를 바로잡고 정의를 고수하며 세기와 세기를 이어온 백년속적과의 싸움을 종결하기 위한 성스러운 애국성전이다.
이 최후의 판가리대결전에서 우리가 얻을것은 민족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이고 잃을것은 군사분계선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이 거족적인 애국성전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민족의 일원으로서의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역사적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해내의 전체 조선동포들!
오늘의 전면대결전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체 조선민족 대 미국사이의 대결전이다.
이 성스러운 민족사적대결전에는 북과 남, 해외가 따로 있을수 없고 사상과 리념, 계급과 계층, 남녀로소가 따로 없다.
지금이야말로 조선민족의 괴와 닢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로 굳게 뭉쳐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한 애국투쟁에 결연히 나서야 할 때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미국과 친미역적패당의 침략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하고 철저히 짓부셔버려야 한다.
남조선과 해외도처에서 전민애국항쟁, 반미

성전의 불길은 새차게 지퍼올려야 한다.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며 전쟁의 근원을 송두리채 제거하여야 한다.
남조선의 친미역적패당을 그대로 두고서는 민족이 편안할수 없으며 전쟁참화를 면할수 없다.
은 민족은 정의의 조국통일대전에 적극 합류하여 남조선의 친미반통일세력을 이 땅에서 영영 쓸어버려야 한다.
우리의 핵억제력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의 상징이고 민족수호의 보검이다.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면 민족의 존재도 없다는것은 만고의 철리이고 약육강식의 법칙이 판을 치는 비극적현실의 교훈이다.
침략의 무리들에게는 상식도, 리성도, 대화도 통하지 않으며 국제법도 안중에 없다.
해내외의 전체 조선동포들은 민족을 지켜주는 위대한 선군정치와 우리의 핵억제력에 응당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하며 적극 지지하고 옹호해야 한다.
우리의 정의의 성전은 절세의 위인들의

위업을 최상의 경지에서 빛내여가시는 백두산천출령장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모시여 더욱 영광찬란하고 승리는 확정적이다.
위대한 평장을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긍지는 비길데 없고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있다.
미국과 괴뢰패당이 우리의 존엄과 자주권을 털끝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우리는 도발자,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동개버리고 단숨에 조국통일대전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고야 말것이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미국과 괴뢰패당의 무모한 대결과 전쟁책동을 짓부셔 버리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전민항쟁, 정의의 통일애국성전에 총결기해나섬으로써 삼천리조국강산에 통일되고 번영하는 천하제일강국을 거어이 일떠세우고야 말것이다.
우리는 애국에 넘친 절절한 호소에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이 적극 화답해나서리라고 굳게 믿는다.
최후의 승리는 우리 민족의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주제 102(2013)년 3월 17일 평 양

승냥이는 몽둥이로 때려잡아야 한다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 《제재》광풍과 그 어느때보다 강도높이 벌어지는 북침전쟁소동으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엄중한 전쟁위기가 조성되어 있다.
적대세력들의 무분별한 침략책동에 대처하여 공화국의 전체 군대와 인민은 최후승리를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상태이다.
그런데 지금 남조선호전세력들은 공화국이 취하고있는 중대조치들과 군대와 인민의 멸적의 의지에 대해 그 무슨 《고도의 심리전술》이니, 《내부결속용》이니 하는 잡포대같은 소리를 늘어놓고있다.
조성된 사태가 얼마나 엄중한지도, 저들의 머리우로 모복의 불소나기가 당장 쏟아져내리려는것도 모르는 열간망둥이들의 추태라고밖에 달리 말할수 없다.
공화국의 천만군대와 인민이 산악같이 떨쳐나선 오늘의 전면대결전은 수십년간에 걸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의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으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싸움이다.
미국이 우리 공화국과 조선민족을 대상으로 하여 감행한 침략과 전쟁, 범죄행위들은 우리 겨레에게 참혹한 처잔과 고통만을 가져다주었다. 미국은 지금으로부터 63년전 리승만괴뢰도당을 사족하여 공화국을 반대하는 북침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삼천리강도를 재더미로 만들고 우리 겨레에게 막대한 처잔을 들이쳤다.
전후에도 미국과 식민지하수인들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매일매시 각 강하게 만들면서 군사적도발과 침략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하였다.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사

건, 《EC-121》 대형간첩비행기 사건, 판문점사건 등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의 특대형도발사건 때마다 조선반도의 정세는 일촉즉발의 전쟁집행으로 치달았으며 인민들의 행복완생함과 평화적정신을 위한 공화국의 노력은 엄중한 난관에 부딪쳐왔다.
미국은 남조선보수패당과 야합하여 지난 수십년간 북침을 겨냥한 합동군사연습들을 광란적으로 벌이며 공화국을 로골적으로 위협해왔다.
《타임스피리트》, 《키 리졸브》, 《독수리》, 《울지 프리덤 가디언》 등 명칭을 바꾸어가며 해마다 진행되는 전전연습소동들은 핵항공포합침단과 핵전략공격기를 비롯하여 옹근 하나의 전쟁을 치르고도 남을 방대한 첨단전쟁장비들이 동원되었으며 그로 인해 조선반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위험한 최대위협지역으로, 한전의 불씨가 핵전쟁을 일으킬수 있는 핵화약고로 되어왔다.
미국은 공화국에 대한 《제재》소동도 수십년간 악랄히 벌려왔다.
력대 미국정부는 공화국을 고립질식시켜보려고 무역, 금융, 투자, 부동산, 보험, 수송, 우편통신, 레왕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제재》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렸다. 현재 미국이 공화국에 대해 감행하고있는 《제재》는 군사분야는 말할것도 없고 주요공상설비, 첨단기술로부터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분야의 거래를 제한, 금지시키고있다.
미국이 이번엔 공화국의 인공지구 위성발사와 제3차 지하핵실험을 결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 조작한 《결의》를 들이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 국방력강화를 저해하기 위한 포악무도한 내용들로

꾸며져있다.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공화국의 경제발전과 국방력강화를 저해하다 못해 민족의 생존권마저 엄중히 위협하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에 대한 공화국 군민의 분노는 하늘에 닿았다. 지금 공화국의 그 어디를 가나 이제는 더이상 참을수 없다. 미국과 최후결판을 내자, 미국과는 힘으로 맞서야 한다는 군대와 인민의 중요와 복수의 목소리들이 연속 울려나오고있다.
보는것처럼 오늘의 전면대결전은 미국에 대한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다. 그 중요의 불화산이 마침내 폭발하여 적대세력이 다시는 하늘을 쳐다볼수 없게 처참한 파멸을 안기려는 전민적인 결사항전의 물결이 이 땅에 새차게 끓어치고있는것이다.
오늘의 전면대결전은 또한 그동안 선군으로 다져온 공화국의 정치사상적, 물리적힘을 총폭발시켜 침략의 아성을 지구상에서 송두리채 짓부셔 버리려는 최후의 성전이다.
적하면 《제재》몽둥이를 휘두르고 핵무기 등 각종 전쟁수단들로 위협하며 도발과 압살책동에 여념이 없는 적대세력들과는 결코 말로써 문제를 해결할수 없다. 조선속담에 승냥이는 몽둥이로 때려잡으라는 말이 있다. 조성된 사태에 대처하여 공화국은 침략자들의 본거지에 대한 핵선제타격권리 행사, 조선정전협정의 완전백지화, 북남사이의 불가침에 관한 모든 합의 전면폐기 등을 엄숙히 선포하였다.
내외가 공인하는바와 같이 정전협정과 불가침합의는 이미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에 의해 파기되고 사문화된지 오래다.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의 사상 류레없는 반공화국압살책동과 끊임없는 북침전쟁연습책동으로 하여 이 땅에는 군사적충돌을 방지할 모든 법률적장치가 유명무실해진 통째 불능의 긴박한 사태가 조성되고 있었으며 전쟁을 막을 제동장치가 완전히 풀린 조선반도정세는 이제 사정없이 전쟁폭발의 길로 질주하게 되었다.
오늘의 엄중한 사태를 지난 시기처럼 말 대 말의 대결로 오산한다면 그처럼 어리석은것은 없다.
공화국의 천만군민은 이미 선군으로 대로 불을 즐기는 침략자, 도발자들의 아성과 본거지들을 모조리 초토화해버릴 의지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타격목표를 확정한 각종 구경의 포들과 대륙간탄도미사일들을 비롯한 미사일들이 침략의 본거지들을 조준경안에 넣고 발사대기태세에 진입해있다.
얼마전에 진행된 백령도와 대연평도타격에 진입되는 조선인민군 포병구분대들의 실탄사격훈련이 보여준바와 같이 일단 명령만 내려지면 침략과 도발의 본거지들은 불바다로 변하게 되어있다.
적대세력들의 극악무도한 반공화국압살책동에 의해 이 땅에서 전쟁은 더는 피할수 없는 일로 되었다.
평화의 파괴자, 전쟁도발자, 동족대결의 광신자들이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끝없는 중요와 복수심으로 단강약된 정의의 타격을 피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누가 누구를 하는 오늘의 판가리대결전에서 우리 겨레가 얻을것은 조국통일이고 잃을것은 원한의 군사분계선이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핵전쟁연습소동이 최정점으로 치달고있는 지금 우리 평양안경상집 전체 종업원들도 가슴스러운 침략자들의 아성을 통째로 들부시는 심정으로 격동의 한초 한초를 보내고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에 접한 다음날 우리 상점의 수습명의 청년들이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전하의 영웅전사들처럼 싸울 비장한 각오를 안고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해나섰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북의 《도발》이니, 《위협》이니 하는 따위의 잡소리를 제치면서 조선반도정세가 전쟁발발의 초긴장상태에 처한 책임이 공화국에 있는듯이 여론을 오도하고있다.
그러나 침략과 전쟁을 생존수단으로 하고있는 호전광들의 범죄적진수는 결코 가리울수 없다.
상대방에게 도발자의 감투를 씌워 침략과 전쟁을 일으키는것은 제국주의자들의 상투적수법이다.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반도에 침략의 검은 마수를 뻗쳐왔다.
《서먼》호침입사건, 무장간첩선 《푸에블로》 호사건, 《EC-121》 대형간첩비행기사건, 판문점사건 등으로 미국은 조선반도에서 군사적도발행위들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그때마다 미국은 저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사죄할 대신 오히려 흑백을 전도하면서 오만무례하게 행동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대결과 전쟁책동에 매달릴 때마다 《북도발》이라는 구실을 들고나왔다.
그 누구의 있지도 않는 《남침위협설》을 떠들며 《안보》라는 미명하에 남조선에 수많은 핵무기와 최신전쟁장비들을 끌어들이는 장본인이 바로 미국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그로 하여 남조선은 극동최

종세력들은 공화국의 평화적인 위성발사와 지하핵실험을 반공화국압살의 계기로 만들려고 비열하게 책동하였다. 적대세력들은 공화국의 정당한 자위적조치들에 대해 유엔 《결의》에 대한 《란폭한 파기행위》니,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이니 하고 매도하면서 그것을 여론화해오던 끝에 유엔안전보

처럼 움직이고 맹무세처럼 도발아 외우고있다.
역사와 현실은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불기름을 몰아오고 있는 침략자, 도발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것을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입이 열개라도 지금 조성된 엄중한 사태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정전협정이 완전백지화된 오늘 남은것은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정의의 행동, 무자비한 보복행동뿐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떨쳐나선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빈말을 모른다.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장본인, 도발자들인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연평도사건에서 교훈을 찾은대신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고 계속 날뛰던 무자비한 불소나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이 못 다 이룬 조국통일의 숙원을 풀고 겨레의 기나긴 고통을 끝낼때는 드디어 왔다.
우리 새 세대청년들은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최후공격명령이 내려진다면 전사가요를 높이 부르며 성스러운 조국통일대전에서 영웅적위훈을 남김없이 떨쳐나갈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오늘의 리수복, 조순옥이 되려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한결같은 각오이고 복수의 의지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지도원 리명복

침략자, 도발자는 누구인가

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되었으며 우리 겨레는 항시적인 핵전쟁위협속에서 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력사적으로 우리 민족은 미국땅에 화살 한촉, 돌맹이 한개 던진적이 없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인민에게 친추만대를 두고 풀수 없는 퍼뜩한 함을 남기고도 모자라 오늘도 공화국을 먹어보려고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최근의 사태가 바로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애초부터 미국과 그 추

장리사회를 발동하여 반공화국 《제재결의》를 또다시 조작해냈다.
그것도 성취치 않아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북침을 노린 위협천만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함으로써 이제 전쟁이 터지는것은 시간문제로 되었다.
남조선당국자들 역시 민족의 귀중한 재부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상전이 하라는데로 《핵포기》니, 《도발중지》니 하고 떠들며 로보트

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떨쳐나선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빈말을 모른다.
조선반도긴장격화의 장본인, 도발자들인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연평도사건에서 교훈을 찾은대신 하루강아지 범무서운줄 모르고 계속 날뛰던 무자비한 불소나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윤현주

판가리싸움의 그날이 오면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광란적인 핵전쟁연습소동이 최정점으로 치달고있는 지금 우리 평양안경상집 전체 종업원들도 가슴스러운 침략자들의 아성을 통째로 들부시는 심정으로 격동의 한초 한초를 보내고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에 접한 다음날 우리 상점의 수습명의 청년들이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돌도 없는 목숨을 서슴없이 바친 전하의 영웅전사들처럼 싸울 비장한 각오를 안고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를 열렬히 탄원해나섰다.

이에 뒤질세라 가정부인종업원들도 결전장에서 용감한 아들들과 함께,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남편들과 함께 육탄이 되어 싸우겠다고 심장의 피를 끓이고있다.
일단 명령만 내리면 적들의 명줄을 완전히 끊어놓아 백두산강군의 진짜전쟁맛을 보여줄 멸적의 의지로 만강약된 인민군대의 영웅적기상이 전민항쟁에 떨쳐나선 우리 종업원들의 가슴마다에도 활화산처럼 타오르고있다.
누구나 자기 일터를 전선으로 여기고 최대의 격동상태를 유지하고있으며 임의

의 시각에 신속히 전투진지를 차지할수 있도록 단단의 동원태세를 갖추고있다.
만일 미제가 어리석게도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던 세기를 이어 쌓이고쌓인 원한과 분노를 총폭발시키거이 결판을 보고야말려는것이 모든 종업원들의 멸적의 기세이다.
판가리싸움의 그날이 오면 침략자들을 씨도 없이 무자비하게 죽여버리고 전승의 축포가 오는 열병광장에 우리도 땀방이 들어서겠다.
평양안경상집 지배인 송성희

전사가요를 높이 부르며

지금 조국강산에는 군대와 인민이 부르는 전사가요가 전하와 일터마다에서 힘차게 울려지고있다.
《조국보위의 노래》, 《결전의 길로》, 《진군도 진군》, 《해안포병의 노래》...
원수적멸의 의지로 심장을 새차게 끓여버지게 하는 전사가요를 들을 때마다 불붙는 적화구를 가슴으로 막고 한몸이 그대로 육탄이 되어 달려드는 적망크에도 서슴없이 뛰어든 1950년대 영웅전사들의 모습이 우뚝이 떠오른다.
나의 할아버지도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나가자 인민군대 용감한 전사들이 인민의 조국을 지키자 목숨을 지키자》라고 노래부르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세워주신 내 나라, 고마운 인민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침략자들과 용감하게 맞서 싸웠다.
나의 아버지 역시 지난 1970년대에 판문점에서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전성도발의 구실을 찾지 못해 무분별하게 날뛰는 놈들을 호되게 죽이고 영웅적조선인민군의 본태를 단단히 보여준 제대군관이야. 그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아버지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미세의 침략적본성은 달라질수 없다고 하면서 어느때든 한번은 원수 미제와 판가리대결전을 벌려야 한다고 말하였다.
할아버지, 아버지세대들

이 못 다 이룬 조국통일의 숙원을 풀고 겨레의 기나긴 고통을 끝낼때는 드디어 왔다.
우리 새 세대청년들은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최후공격명령이 내려진다면 전사가요를 높이 부르며 성스러운 조국통일대전에서 영웅적위훈을 남김없이 떨쳐나갈 것이다.
하나밖에 없는 조국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쳐싸우는 오늘의 리수복, 조순옥이 되려는 것이 우리 청년들의 한결같은 각오이고 복수의 의지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지도원 리명복



침략자, 도발자들은 무자비한 불소나기를 면치 못할것이다.

연평도는 웨친다

리 송 일

레물린 땅 삶의 리친 버리고 떠나간다 연평도어민들이 불안과 공포에 질려 이 땅에 핵전쟁을 몰아오려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저주하며

3년전에도 애매하니 불벼락을 당한 사람들이다 평화로운 꽃게어장에 신성한 공화국의 평화에 포탄을 쏘아댔던 바로 이놈들때문에

연평도가 징벌을 받았더라 하늘이 불소나기 퍼붓는듯 그 끔찍한 광경 목격했던 사람들이 어이 떠나지 않을수 있으랴 그날의 교훈 망각한 놈들 《제재》와 《선제타격》 쫓치며 또다시

무모한 불량장난칠 하고있으니

이번에는 정령 제도 남지 못하리라

정전협정은 이미 백지화되고 쌍이고쌍인 분노를 재워 침략의 거점들 모조리 백두산총대가 정조준했거늘

한점 불꽃이 우리 땅에 떨어져도 연평도는 삼시에 초토화되리니 떠나지 않을수 없으라 너덜난 미제의 핵우산 믿었다가 목숨까지 잃을뻔했던 연평도 사람들

떠나가며 끝없이 저주하노라 누가 오해서 우리 땅에 기여들

불을 지르라!

남북언론에 실린 글과 사진을 보며

낮을 이어 한밤에도 전쟁의 불길 막고싶은 마음 조발로 커지고 떨쳐나섰는가 서울의 보신각앞에 펼쳐놓은 시민들의 반전평화대회!

손에손에 역세게 들어친 저 초불과 초불

어찌 한가닥 바람에도 꺼지는 가달픈 초불이라 하라 그것은 폭풍에도 꺼지지 않을 정의의 불, 진리의 불

들어보라, 초불을 흔들며

진쟁을 반대하는 저들의 절규 이 서울이 폐허가 될것이라고... 일선에 서있는 오빠가 총알받이가 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난다고...

누구인들 모르라 악명높은 합동군사연습 그 광란적인 총포성이 이 땅에 전쟁의 불이 터진다면 저들의 운명이 삶의 터전에 어떤 참화가 들춰워지는지

상상만 해도 얼마나 무서우라

있느냐 한강로 한민족을 몽청 갈라 60여년 동족대결 부추기는 살인마 미제야

뒷대문에 양기를 주주로 사느냐 조선사람들을 쓴 더러운 매국노들아...

오, 원한의 절규 사무친 연평도 연평도는 웨친다! 침략자 미제와 괴뢰호전광들 한눈도 없이 깡그리 쓸어버려야 이 땅에 평화로운 삶이 있다!

서울은 물론 온 남녘방이 죽음의 불길에 휩싸였던 섬 그날의 연평도보다도 더 참혹한 재더미로 변하리니

미제와 괴뢰군부패당이 무분별하게 일으킨 전쟁으로 앉아서 비참하게 죽느니 살아서 전쟁을 막으리라 비장하게 타오르는 초불, 초불

오늘에 우리 초불이 꺼지면 매일엔 전쟁의 불이 인다 그 운명의 초불 하나로 묶여 들어

질게 드러온 전쟁의 먹구름 활활 불태워가는 강한 모습들

도발자의 말로는 비참하리라!

리 철 준

도적이 제발저리듯 도적이 매를 드는듯 피대를 뚫겨 떠돌아댄다 북 《도발》모락소동에 매달린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

피가 거꾸로 솟는다 북이 《위협》과 《도발》로는 아무것도 얻을것이 없다고 쫓치는 그 뻔뻔스런 악담칠 틀어친 총대가 분노에 운다 천만의 보복의지 더욱 불타오른다

누가 건드렸느냐 누가 위협했느냐 창조와 건설의 노래대들이 강성국가의 매일을 향해 가던 사람들 평화적위성발사의 성공으로 지하핵실험의 대경사로 환희의 춤바다 펼쳤던 이 나라 인민들

지구상 어느 나라 어느 민족도 웅당 가질수 있는 자주적권리다 우리의 위성발사!

제국주의강권과 위협에 단호히 맞선 자위적조치다 우리의 지하핵실험은!

이것이 어찌 평화에 대한 《도발》로 될수 있는가 지구상 곳곳에서 수많은 위성발사와 핵실험이 있었던건만 어찌하여 우리만이 《제재》와 《압살》의 대상이 된단 말인가

보라, 정당한 우리의 권리 행사에 《도발》의 감투를 씌워 날강도적 《제재결의》 조작한 놈들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 남녘의 하늘과 땅, 바다에서 광란적으로 벌려놓고 있지 않는가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보라 화살 한축, 돌맹이 하나도 이 땅에서 날아간적 없건만 침략선 《서먼》호는 어디서

왔고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 《EC-121》대형간첩비행기는 과연 어디서 기여들었느냐

년대와 년대를 이어 도발만을 일삼던 미제와 괴뢰 호전광들 오늘 또다시 북침전쟁의 불구름 몰아오고있으니

정녕 어느 놈들이가 정전협정의 파괴자, 도발의 주범은

까마귀 열두번 울어도 까옥 소리뿐 《년례적인 방어훈련》이라 네놈들이 아무리 떠돌아대도 결코 가리울수도 숨길수도 없다

도발자의 정제, 침략자의 흉계를

세계는 보게 되리라 무진막강한 백두산혁명군군 무자비한 보복타격앞에 무나비처럼 타버릴 도발자, 침략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가슴후련히 통쾌하게 보게 되리라!

도발자들의 소굴을 최후의 무덤으로

오늘 조선반도정세는 내외 호전세력들의 악랄한 반공화국대결책동으로 말미암아 평화나 전쟁이나 하는 중대한 갈림길에 놓여있다.

우리 겨레는 바라지 않았지만 침략자, 호전광무리들에 의해 이 땅에서 전쟁의 도화선은 시시각각으로 타들어가고있다.

정전협정도, 불가침합의도 이미 하늘로 날아가버린 지금 내외의 시선이 제일 집중되고있는 곳이 쌍방간의 대립이 제일 첨예한 조선반도 서해지역이다.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5개 섬들이 위치한 이 일대로 말하면 지난 시기 북과 남의 군사적충돌이 여러차례 일어난 최대열점지역이다.

이렇게 된데는 이 5개 섬들을 오래동안 반공화국정당 모락소굴, 북침선제공격기지로 만들고 온갖 도발과 전쟁행위들을 밥먹듯이 해온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에게 책임이 있다.

수년전에도 남조선호전세력은 연평도에서 신성한 공화국의 평화에 《포사격훈

련》의 미명하에 포탄을 마구 쏘아대는 극도의 도발행위를 감행하였다. 이것이 발단이 되어 결국 서해에서 불과 불이 오가는 엄중한 사태까지 벌어졌다.

여기에서 교훈을 찾고 자제할 대신 남조선의 호전세력은 불법무법의 유령선인 《북방한계선사수》와 그 무슨 《용징》을 떠들며 무력증강책동과 군사적도발소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였다.

연평도와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개 섬일대에 북침선제타격을 노린 대함유도무기, 지대공미사일, 신형대포병배치, 다련장로켓, 《스파이크》형미사일 등의 첨단무장장비들과 수천명의 해병대부력을 끌어들이는 가 하면 《교전규칙》을 무장도발에 유리하게 보다 공격적인것으로 뜯어고쳤다.

뿐만아니라 군사적도발과 북침전쟁을 기본사명으로 하는 《서북도지방위사령부》를 조직하고 공화국에 대한 상륙과 선제공격을 노린 각

중 해병대연합훈련을 련이어 벌려놓았다.

심지어 호전광들은 《서북도서해 북의 목을 노리라는 비수》라든가 같은 전략목적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끝내내 벌려놓았다.

이 무모한 전쟁연습이 임의의 시각에 실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다. 이것이 정세가 첨예한 서해지역에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면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놓았다. 연평도와 백령도에 주둔하고있는 해병대 6천여명을 비롯하여 미국과 남조선의 침략부력이 불과 10여km 떨어진 공화국의 서해안에 불시상륙하여 최단기간내에 평양으로 《진격》할것을 계획하고 그 연습을 치밀하게 해온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호전광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과 북침전쟁준비책동으로 하여 오늘 서해일대는 언제 포탄이 다시 오갈지 알수 없는 항시적인 총들의 위협지역,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은 서해를 비롯한 남조선의 전지역에서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타격을 노린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을 끝내내 벌려놓았다.

이 무모한 전쟁연습이 임의의 시각에 실현으로 넘어가지 않는다는 담보는 없다. 이것이 정세가 첨예한 서해지역에서 군사적도발을 감행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전면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놓았다. 연평도와 백령도에 주둔하고있는 해병대 6천여명을 비롯하여 미국과 남조선의 침략부력이 불과 10여km 떨어진 공화국의 서해안에 불시상륙하여 최단기간내에 평양으로 《진격》할것을 계획하고 그 연습을 치밀하게 해온것도 알려진 사실이다.

호전광들의 무분별한 군사적도발과 북침전쟁준비책동으로 하여 오늘 서해일대는 언제 포탄이 다시 오갈지 알수 없는 항시적인 총들의 위협지역, 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었다.

반동일대결세력의 핵위협과 대령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이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대결전에 진입한 이 시점에서 반동일대결세력은 그 누구의 《핵위협》이나 뭐니 하며 불만을 미친듯 무리처럼 헤뭇버치고있다. 지난 17일에도 《새누리당》 대변인이 라는자는 《북이련일(핵위협)으로 (한)반도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민족의 자주권을 말살하기 위해 매를 지어 덩벼드는 날강도들의 침략전쟁책동에 맞서 그것을 짓부시기 위해 진입한 공화국의 전면대결결정 《도발》로 매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핵무장까지 해지시키려고 헤뭇버는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 못할 천하역적절이다. 한편 그것은 공화국 친만국인의 멸적의 기산으로 절집한 반동일대결세력의 불안과 공포의 반영이기도 하다.

력사와 민족, 시대의 버림을 받고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난 리명박역적도 반민족적이며 반동일적인 《비핵, 개든 무자비하게 징벌하는것이 공화국이 핵을 보유한 유일무이한 목적이다.

적하한 핵무기를 휘두르는 리명박의 침략과 전쟁의 원흉 미국과는 말이나 진실이 통하지 않는다. 이것은 약육강식론리가 지배하는 이 세계가 펼쳐 보이는 엄중한 현실이며 세기를 이어오는 가렬한 반미대결전에서 공화국이 찾은 피의 교훈이다.

공화국의 핵무기는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는 만능의 보검으로서 미국의 핵위협과 적대시정책이 존재하는 한 후호도 건드릴수 없다.

남조선의 반동일대결세력의 《북핵위협》 타령은 현실판단능력이 완전치 마비된 백치, 천치들의 망발일 따름이다.

민족의 자주권을 말살하기 위해 매를 지어 덩벼드는 날강도들의 침략전쟁책동에 맞서 그것을 짓부시기 위해 진입한 공화국의 전면대결결정 《도발》로 매도하고 그것도 모자라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마련한 핵무장까지 해지시키려고 헤뭇버는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용납 못할 천하역적절이다. 한편 그것은 공화국 친만국인의 멸적의 기산으로 절집한 반동일대결세력의 불안과 공포의 반영이기도 하다.

력사와 민족, 시대의 버림을 받고 권력의 자리에서 쫓겨난 리명박역적도 반민족적이며 반동일적인 《비핵, 개든 무자비하게 징벌하는것이 공화국이 핵을 보유한 유일무이한 목적이다.

구해왔다. 그러나 리명박의 《대북정책》도, 《흡수통일》의 어리석은 개꿈도 총파산되었다.

리명박이 《흡수통일》의 허황한 꿈을 꾸며 《기다리는 전략》을 추구하는 동안 공화국은 더욱 강경해졌으며 강력해졌다. 공화국의 자위적군사력, 핵억제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었고 오늘 공화국은 경제적으로도 최첨단을 돌파하며 비약의 한걸음 나아가고있다. 특히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과적발사와 제3차 지하핵실험의 성공은 중핵조선의 우주과학기술과 종합적국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 호전광들은 침략적인 외세와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위협천만한 전쟁불장난을 미친듯이 벌리고있다.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도 여전히 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심화되고 악랄해지고있다.

현실은 미국의 가증되는 핵위협에 공화국이 그보다 더 위력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단호히 맞서는 것이 천만번 정당하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과 최후의 전면대결전이 벌어지고있는 지금 남조선의 역적대당들이 구세주처럼 믿는 미국의 핵우산도, 그 무슨 국제공조자들과의 비참한 운명을 구원해주는 못할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위협천만한 핵선제공격연습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이 벌려놓은 무모한 북침전쟁연습인 《키 리졸브》와 《F-22》스텔스 전투기, 《B-52》 전략폭격기 등은 침략전쟁마당에만 나타나는 핵선제공격무기들이다.

남조선인론들도 핵잠수함과 《B-52》 전략폭격기의 이번 연습참가는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하고있다.

핵잠수함과 《B-52》 전략폭격기는 작전반경이 대단히 넓고 전략핵탄두를 탑재하는것으로 하여 핵항공모함선단과 함께 미국의 다른 나라에 대한 핵선제타격과 침략전쟁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기동으로 되고있다.

핵잠수함, 전략폭격기와 같은 핵타격수단들, 추종국가무력을 포함한 방대한 무력이 동원되어 실현의 분위기 속에서 벌어지고있는 이번 전쟁연습을 두고 미국이 《년례적인 방어훈련

이라고 떠들고있는것이야말로 여론에 대한 과렴치한 기만이다.

대규모북침전쟁연습이 한창 벌어지는 속에서 남조선군부호전광들의 입에서는 그 무슨 《지휘세력》 및 《원점타격》이니, 《북침전선별》이니 하는 극히 도발적인 폭언까지 울려나와 연습의 침략적성격을 더욱 드러내보였다.

이번 전쟁연습을 통해 다시금 여실히 폭로되고있는것처럼 자주적인 우리 공화국을 핵으로 위협하고 압살하기 위해 날뛰는 세력은 바로 미국이다.

그러나 미국이 원자탄을 독점하고 공화국을 상대로 핵공갈을 마구 일삼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이미 공화국은 미국이 핵무기까지 휘두르며 덩벼들고있는 이상 우리 역시 다 총화된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맞받아치게 될것이라는것을 명백히 천명하였다. 공화국의 정의의 핵타격수단들은 침략세력의 머리에 보복의 불벼락을 들이칠수 있는 만단의 전투준비태세를 갖추고있다.

미국과 남조선호전광들이 공화국의 신성한 평토와 평토를 단 0.001mm라도 침범한다면 이 땅의 군대와 인민은 적대세력에 대한 쌍이고쌍인 분노와 막강한 위력을 총폭발시켜 침략의 본거지들을 불바다로 만들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완수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서희

군사연습을 반대하여 초불투쟁 전개

남조선의 진보연대,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힘》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성원들이 미제와 남조선호전세력의 합동군사연습을 반대하여 16일 서울 보신각앞에서 초불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당국이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롭게 살자고 하는 사람들을 《중북》으로 몰아대고 있다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전쟁을 막고 통일을 위한 길로 나서라는 세력은 바로 미국이다.

남조선에서 북침전쟁분위기가 고조되고있는 가운데 18일 미국방성 부장관 카터가 남조선을 핵강하였다. 핵각간간 그는 남조선국방부장관 김관진과 외교통상부장관 윤병세를 각각 만나 그 누구의 《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그에 따른 군사적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카터는 남조선미국 《공동대응》이라는 미명하에 공화국을 핵선제타격하기 위한 《맞춤형억제전략》을 곧 완성할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면서 남조선에 핵우산은 물론 제재식타격능력과 미사일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능력을 제공해줄것이라고 확약하였다. 이후 남조선주재 미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기자회견이라는데서 그는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과시하기 위해 전략폭격기 《B-52》가 합동군사연습에 참가하게 된다면 《B-52》 전략폭격기의 통

우리 식의 정밀핵타격수단으로

살아갈 그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자고 호소하였다.

집회참가자들은 《전쟁대신 평화!》, 《전쟁연습 중단!》 등의 구호를 외치며 반전평화의지를 과시하였다.

본사기자

상적인 훈련이 《앞으로도 계속될것》이라는것을 로골적으로 공개하였다. 그런가 하면 남조선미국련공군사령관과 함께 《키 리졸브》 합동군사연습장을 돌아다니다 호전세력들을 무모한 북침도발에로 적극 부추겨왔다.

이런 속에서 19일 미공군의 전략폭격기 《B-52》가

전쟁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행동에 나설것을 요구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성명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성명을 지지하여 13일 빠르게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씨야연방공산당 빠르피잔스크시위원회가 련명으로 미국과 남조선 집권자에게 항의편지를 보냈다.

편지는 로씨야연방 연해변장 빠르피잔스크시는 조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 핵잠수함과 함께 《3대전략핵타격수단》중의 하나로 삼고있는 《B-52》 전략폭격기를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투입한것은 결코 스쳐보낼 일이 아니다.

1956년 비키니섬에 수소폭

선반도의 긴장상태가 미군과 《유엔군사령부》의 개입으로 계단식으로 확대, 지속되고있는데 대하여 커다란 불안감을 느끼고있다고 밝혔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조선인민의 변명과 안정을 보장할수 있는 북과 남의 통일을 위하여 꾸준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조선반도의 평화보장에 이바지하여

을 보여주고있다.

지금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은 그 어느때보다 《북핵위협》에 대하여 목청을 높이고있다. 그러나 제반 사실들은 《북핵위협》설이 공화국에 대한 저들의 북침핵선제공격기도를 가리우기 위한 한갖 기만이며 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의 장본인이 다

를 보여주고있다.

이번에 미국과 남조선호전세력들이 그 무슨 《공동대응》과 《의지과시》를 떠들며 전략폭격기이니, 핵잠수함이니 하는것들을 남조선에 끌어다놓고 공화국을 놀래워 보려 하지만 그것은 한갓 부질없는짓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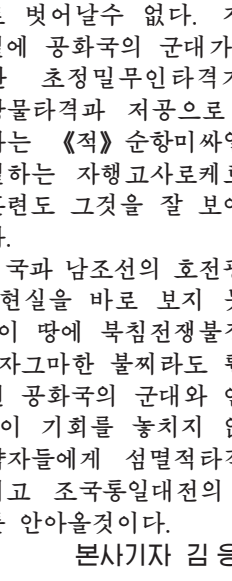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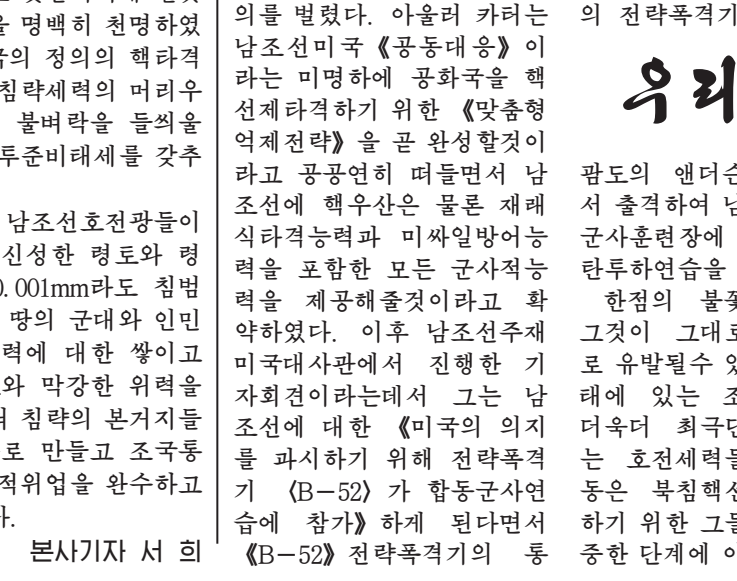
공화국은 미국이 핵선제공격을 감히 시도해나선다면 다중화된 우리 식의 정밀핵

타격수단으로 무자비하게 맞받아 쳐갈것이라는것을 명백히 선언하였다.

미국이 《3대전략핵타격수단》을 다 동원한다 해도 공화국은 그에 눈설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전략폭격기이든 핵잠수함타격선에서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 지난 20일에 공화국의 군대가 진행한 초정밀무인타격기의 대상물타격과 저공으로 패습하는 《적》 순항미사일을 소멸하는 자행고사로켓사격훈련도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

미국과 남조선의 호전광들이 현실을 바로 보지 못하고 이 땅에 북침전쟁불장난의 자그마한 불씨라도 튀긴다면 공화국의 군대와 인민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침략자들에게 섬멸적타격을 안기고 조국통일대전의 승리를 안아올것이다.

본사기자 김응철



최근 남조선에서는 정보원 원장 원세훈이 《중북세력》 탄압과 여론 조작을 지시한 내부문건이 폭로되어 커다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남조선에서 정보원은 파쇼와 독재, 대결과 모략의 소굴이다. 북남관계를 최악의 대결상태에 몰아가고 남조선의 통일민주세력들에 대한 파쇼적 탄압이 그칠새 없이 감행되고있는 리면에는 언제나 남조선의 정보원이 도사리고있다.

한때 6.15사태의 격류에 밀려나 움츠러들었던 이 파쇼 정보기관은 리명박 《정권》의 출현과 함께 되살아나 반공화국모략소동과 파쇼독재정치권에 앞장섰다.

특히 원세훈은 6.15자주 통일시대에 역행하여 교활한 음모와 모략으로 반공화국대결분위기를 극도로 고취하고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기 위해 가장 악질적으로 책동해온 반민족범죄자이다.

이자는 《잃어버린 10년을

파쇼와 대결, 모략의 소굴

되찾았다.》는 집권자의 지침에 따라 취임후 《과거에 대한 반성있는 앞으로 나갈수 없고 부족한 점을 직시하고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뇌까리며 남조선전역에 반공화국대결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발악적으로 책동하였다.

원세훈은 《북간첩단》 사건을 린이 조작해내며 음모가다운 기질을 그대로 발휘하였다. 원세훈과 정보원 매거트리들이 조작해낸 이른바 그 무슨 《녀간첩사건》이요, 《전직 안기부요원사건》이요 하는것들은 하나같이 사건에 대한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증거가 명백치 않은 모략극이었다.

오죽하였으면 당시 사건을 기초받은 검찰측도 그 무슨 《녀간첩사건》에 대해 그가 입수하였다는 《기밀정보는 지하청담지현황이나 시용시내 대학교에 대한 일 반적인 정보 등 누구나 쉽게

접근할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된다.》고 불명조로 조소하였겠는가.

특히 용납할수 없는것은 정보원이 각종 형태의 반공화국에 단테들을 조직하고 공화국에 대한 특대형과피압해책등을 모랄적으로 감행해나선것이다.

북남관계를 파탄시키고 통일운동을 가로막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정치적술수와 모략도 서슴지 않는것이 바로 대결과 모략의 소굴인 남조선의 정보원이다.

파쇼교형리들은 통일운동 단체들과 애국인사들에 대한 《초토화》작전도 공공연히 벌리었다.

원세훈이 《국회인사청문회》때부터 《정치권이 체제전복세력에게는 침투대상이 된다.》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이른바 《체제전복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하였다는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자가 말하는

《체제전복세력》이란 다른 아닌 북남관계개선과 나라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통일운동단체들과 애국적인 련북동일인사들이다.

원세훈일당은 남조선의 민간협력단체들의 대북협력사업과 통일운동들에 대해 과거까지 날아갈 뽕치며 《북의 지원》을 받았으며, 《북의 대남혁명로선에 동조하였다.》느니 뽕치 하거나 서슴지 않는것이 바로 대결과 모략의 소굴인 남조선의 정보원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 각계 《제2의 북풍을 만들겠다는 매우 불순한 의도.》 《정당한 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이며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저질러진 대북협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보원은 남조선에서 민주와 인권, 정의를 말살하기 위해서도 악랄하게 책동하

였다.

미국산 미친소고 기수입반대 초콜시위투쟁을 《불법》으로 몰면서 시위군중을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 《체제전복세력》으로 매도하고 초초적인 생존권수호투쟁에 나섰다 무참하게 희생된 통상철폐기동들에게 《테러분자》, 《불법폭력주의자》라는 딱지를 붙이는 망동도 서슴지 않은 것이 정보원재지름이었다.

하기에 지금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더이상 국정원의 공안몰이희생자가 될수 없다.》며 《민주세력 탄압을 위해 수많은 간첩사건을 조작했던 독재정권시절의 중앙정보부, 안기부와 무엇이 다르냐.》, 《국가정보원을 해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있다.

온갖 비렬하고 추악한 방법으로 동족대결책동을 일삼으며 시대와 민족의 지향에 도전해나서는 정보원과 같은 모략기구들은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한다.

말 한마디로 천금을 살수도 있고 재난을 당할수도 있다.

후자에 속하는 재난덩어리가 오늘 남조선에 들어박혀있다.

지난 14일 남조선의 《국무총리》 정홍원과 함께 연평도를 행한 해병대 부사령관 리상화는 무덤하게도 공화국의 최고군업을 걸고들며 《다시는 못 오게 해야 한다.》느니 뽕치 하는 악담을 쉼치대며 총개들을 달구어냈다. 이에 뒤질세라 정홍원도 북의 어떤 《도발》에도 확실하게 대응할수 있도록 만단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도발할 경우 10배의 타격을 가해야 한다.》고 떠벌였다.

이것은 공화국에 대한 또 하나의 특대형도발사건으로 볼사하겠다는것을 공공연히 선언한 대결미치광이들의 히스테리적망동이다.

조선반도가 지금 터지기 직전의 전쟁화약고를 방불케 하고있다는것은 자라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이르고 사소한 우발적소동에 의해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의 불꽃이 필수 있는 위험천만한 지역이 조선반도이다.

조선반도가 지금 터지기 직전의 전쟁화약고를 방불케 하고있다는것은 자라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서로에 대한 불신이 극도에 이르고 사소한 우발적소동에 의해서도 충돌이 일어나고 전쟁의 불꽃이 필수 있는 위험천만한 지역이 조선반도이다.

최소한의 전쟁억제장치였던 정전협정과 불가침합의들이 하늘로 날아가고 전쟁을 막을 제동장치가 완전히 풀린 오늘 조선반도는 사실상 쌍방간의 대치상태가 최정점에 이른 전이상태다 다름없다.

이런 속에서 민족의 최고군업을 걸고 드는 특대형도발행위가 어떤 협박한 사태를 불러일으킬 것인가 하는것은 삼척 동자도 알 일이다.

이미 공화국은 민족의 최고군업을 혈투는 특대형도발자들에게는 실사 그가 누구이든 이 세상 끝까지 따라가서라도 거이 결정관을 내세야할것이라는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를 내외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최근 잇달아 진행되고있는 조선인민군 라격부대들의 무자비한 실탄사격훈련도 침략의 무리, 역적무리들의 본거지를 혼적도 없이 짓궂게버리기 위한것에 모를 둔 집중화력사격훈련이다. 명성이 해병대 부사령관이 라면 결코 이것을 모를리 없다.

이러한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공화국의 최고군업을 걸고들며 광기를 부리는것이야말로 동족에 대한 적대시와 대결광풍이 팔수에 사무친 전쟁미치광이들이 아니고서는 감히 양도도 낼수 없는것이다. 정말이지 그들이 아무리 남쪽 수천만의 운명을 위해잡게 하는 회세의 천하적무리들이 틀림없다.

지금 원수에 대한 뽕어오르는 적개심과 분노로 만장약된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하다.

공화국의 군대도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음이 없이 임의의 시기, 임의의 대상에 대한 선제공격리를 마음먹은대로 행사할수 있게 되어있다.

천하적무리들의 본거지를 겨냥 다총화된 정밀타격수단과 전략로켓, 각종 도 등이 누르던 발사하게 되어있고 퍼부으면 불바다로 라번지게 되어있다.

야마전 남조선 합동참모본부가 공개한 서울, 경기도, 인천지역이 공격을 받을 경우 191.2km에 달하는 면적이 완전히 초토화되고 325만여명의 사상자가 날것이라는 예상자료는 결코 우어한것이 아니다.

결국 역적배당의 망동은 백두산강군의 피서같은 불벼락선언과 무자비한 초강경대응조치에 넋을 잃은자들의 단말마적인 발악으로서 남조선내부에 조성된 극도의 불안과 공포분위기를 녹갓고 총개들의 사기를 추세워보려는 회세의 구치라고 말할수 없다.

무덤하게도 하늘의 태양을 어찌보려고 분수없이 날뛰는 역적무리들이 이 땅위에, 이 하늘에 아직까지 살아숨쉬고있다는것은 우리 민족의 수치이다.

리상화, 정홍원과 같은 역적무리들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공화국의 최고군업을 함부로 혈투으며 격기를 부리는 너희들이야말로 공화국 천만국민의 첫번째 범죄배당이라는것을. 이것은 결코 빈말이 아니다.

역적무리들은 세치 혀바닥때문에 어떤 비참한 운명이 차레지게 되는가를 몸서리치게 깨닫게 될것이다.

첫번째 범죄초대상인

핵위협의 장본인은 미국 (2)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전초기지로

미국은 조선전쟁에서 당한 수치스러운 참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핵공능을 휘둘러 거이 공화국을 압살할 기도밑에 정전직후 남조선에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끌어들였다.

6.25전쟁직후 남조선을 아시아와 세계제패전략실현을 위한 《사활적인 작전지역》으로 선포한 미국은 남조선의 핵기지를 정책화하였다.

1955년 3월 17일 당시 미국부대통령 닉슨은 《우리가 조선전쟁과 제2차 세계대전시에 사용하던 무기는 구식화되었다. 전술원자무기가 활용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와 아시아에서 《원자무기는 이미 마련되어있다.》고 공언하였다.

1957년 2월 12일 미국은 남조선미국 《군사회담》에서 남조선주둔 미군을 핵무기로 장비시킬데 대하여 모의하였고 그 실행단계로서 1957년 6월 조선반도 경리로부터의 일체 신형무기반입을 금지한 정전협정 제13항 료목을 일방적으로 파괴하였다. 그리고 같은해 7월 15일에는 남조선에 대한 《핵무

장화 착수》를 세계에 공식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1958년 1월 29일 남조선강점 미군의 핵무기반입을 정식발표한 미국은 《오네스트존》 핵미사일, 280mm와 8in폭사포 등으로 방사능을 있는 핵포탄 배비를 시작으로 남조선에 수많은 핵무기를 끌어들였다.

1960년대에는 《나이코 허클레스》, 《마라돌》 및 《호크》 유도탄을 비롯한 각종 원자 및 유도무기와 핵지뢰들을 끌어들였으며 1970년대에 들어와 더 많은 신형핵무기를 반입하였다. 하여 1970년대 중엽에 이르러 남조선에는 벌써 1000여개의 각종 핵무기들이 배비되었다.

이에 대해 1975년 6월 미하원 의원 로널드 디립츠는 국회에서 한 연설에서 《미국이 남조선에 1000여개의 핵무기를 반입하였고 54대의 핵폭탄은반용비행기를 전개해놓았다.》고 실로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신형 핵무기반입책들은 절정에 달하였는바 1980년대초 그 어느

해외주둔 미군에도 공급하지 않은 155mm 핵포탄 31발, 항공용 핵포탄 133개, 8in극 사포용 핵포탄 63발, 핵지뢰 21개를 남조선강점 미군에 배치하였다.

일본잡지 《세 까이》 1985년 9월호는 동두천, 의정부, 대진, 오산, 군산, 대구 등 지역에서 미공군과 공군의 핵무기저장고와 핵전투폭격기 《F-4E》들이 전진배치되어있다고 전하였다.

이런것들을 다 꼽자면 끝이 없다.

남조선에 전개된 미국의 핵무기는 그 배비밀도에서 1990년 나토지역의 4배, 그 폭발력에 있어서는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1000배 이상에 달하였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이 남조선에 얼마나 많은 핵무기를 배비하였는가를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정말이지 남조선은 핵폭탄과 핵포탄, 핵탄두, 핵지뢰와 핵운반수단, 핵기지와 핵저장고들이 짝 들어찬 세계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되었다.

미국이 내외에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남조선괴뢰들을 내

세워 1991년 12월 기만적인 《핵무기재선언》이라는 것을 발표하게 하고 1992년 7월에는 당시 대통령이었다 부쉬(1세)가 나서서 아시아에 배비한 모든 전술핵무기를 완전히 철수하였다고 공언하였지만 그에 대해 확인된것은 없다.

그 이후에도 미국의 남조선에 대한 핵전초기지화정책과 책들은 달라지지 않았으며 그것은 지금까지 여러모로 확인되고있다.

1997년 2월 일본 오기나와미군기지의 우라니움탄을 전면 철거하여 남조선의 미군기지에 재배치한 사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조선반도의 긴장완화속임수에 역행하여 《B-1》 전략핵폭격기 2대를 오산미공군기지에 추가배치한 사실, 2010년 12월 미군비밀문서 등하여 공개되었지만 2005년 4월 춘천미군기지에 핵무기가 배비되어있을 사실,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이 짝 들어찬 세계최대의 핵전초기지로 전변되었다.

미국이 내외에서 비난과 규탄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남조선괴뢰들을 내

만들어놓고 공화국에 대한 핵위협을 계단식으로 확대해왔다.

오늘날 공화국이 핵억제력을 보유하게 된것은 바로 미국의 이런 엄중한 핵위협과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와 민족의 안전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철두철미 자위의 조치이다.

본사기자 김련옥

력사의 심판을 면할수 없다

나라와 민족을 동진 반역자들의 결코 무사할수 없다.

권력의 자리에서 물러나서도 인민들의 중요와 원한, 라도의 표적이 되고있는 리명박역도의 가련한 신세가 그것을 보여주고있다.

야마전 남조선의 《YTN》 모도조합은 리명박이 저지른 민간인불법사찰행위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여 검찰에 고소하였으며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련대도 내곡동주택부지매입의혹과 관련하여 리명박과 그 일가들을 고발하였다.

한편 남조선의 각계는 언론장악, 통상철폐기민화살사건, 쌍용자동차사태, 제주해군기지건설, 《천안》 호침몰사건조사, 외환은행인수 매각사건 등 리명박의 주요 위법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진상규명서 제발들의 배를 불리워준 것을 요구해나서고있다.

이것은 인민들을 기만우롱하면서 친추반대에 썼을수 없는 죄를 범한 리명박이 민심의 버림을 받아 극도로 고통과 수치감을 받고있으며 운명의 리미막시기를 보내고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리명박을 심판하려는 남조선인민들의 투쟁은 너무나도 웅장한것이며 거기에선 파쇼와 부패의 무리를 청산하고 사회적정의를 바로세우려는 그들의 확고한 결심과 의지가 담겨져있다.

돌이켜보면 리명박이 집권기간 《서민을 위한 정치》니 뽕치 하고 인민들을 위해 무엇인가 할것처럼 요란스레 떠들었지만 남조선에서 이전과 달라진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남조선은 이전의 군부독재때보다 정치적으로 더 파쇼화되고 경제적으로 더 예속화되고있으며 민생은 더욱 도란속에서 빠졌다.

리명박이 집권후 한 일이 있다면 인민들이 하지 말라는 《4대강정비사업》과 《공기업인영화》와 같은 반역적책들을 한사코 추진하면서 재벌들의 배를 불리워준 것뿐이다.

어디 그뿐인가. 《공정환사회》, 《깨끗한 정부》의 간판밑에 같은 부정협약으로 막대한 부를 걸어모은것도 바로 리명박족속들이다.

기바오 우룡, 협잡과 독단으로 남조선의 민주주의적발

진의 길을 차단하고 독재정치를 부활시켰으며 온갖 부정부패행위로 사회를 썩게 만들고 경제파란과 인민생활을 말락시킨것, 바로 이것이 리명박의 《실용정책》이 가져온 전부이다.

리명박이 민족의 화해와 단합, 통일을 한사코 가로막으면서 북남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고 대결을 격화시킨것은 또 하나의 크나큰 죄악이다.

리명박은 력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전면부정하고 어리석은 《홍수정책》을 추구하면서 대결과 전쟁책동으로 북남관계를 력사상 최악의 파국상태에 빠뜨렸다.

동족의 대국에 조의례를 지킬때만 슬픔에 잠긴 거레에게 칼질을 하고 선민자들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했던 특대형도발행위들을 린이 감행한 리명박의 죄악은 천추에 용납할수 없는것이다.

남조선에는 부정부패와 파쇼독재, 동족대결로 악명을 떨친자들이 적지 않지만 리명박과 같은 천하적역은 알지 못한다.

리명박이 집권 5년간 저지

른 죄악은 도저히 계산하기조차 어려운 전대미문의 죄악이다.

남조선에서 인민을 배반하고 민족을 동진자들의 운명을 어둠했는가 하는것은 력대 통치배들의 비참한 말로가 보여주었다.

리승만은 해외로 쫓겨가 외딴 섬에서 고독한 종말을 고했고 《유신》 독재자는 심복의 총에 맞아 개죽음을 당했으며 전두환과 로태우는 최고랑을 차고 감옥행을 하였다.

이제 리명박에게도 그러한 운명이 차례질것이라는것은 불을 보듯 명백하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벌어지고있는 리명박심판투쟁을 놓고는 누구나 쉽게 도출할수 있는 결론이 있다.

그것은 그가 누구든 시대의 흐름과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는자들은 반드시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것이다.

이것은 지금도 외세에 추종하여 동족을 해치려고 분별없이 날뛰는 대결광, 호전광들에게 주는 시대의 엄중한 경고로 된다.

본사기자 주광일

반전평화를 위해 투쟁할것을 주장

남조선의 평화통일운동단체 《통일의 길》이 12일 서울에서 정기총회를 가지고 올해 투쟁계획을 확정하였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성원 유영재는 미군 범죄로 인해 남조선국민들의 생명과 재산, 안전이 위협받고있다고 개탄하였다.

최근에는 주민들뿐 아니라 경찰들에게까지 폭행을 가

고 차로 들이받는것과 같은 범죄도 서슴없이 감행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미군범죄가 계속되는것은 불평등한 남조선미국 《행정협정》 때문이며 남조선방위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범죄자들을 처벌하지 않기때문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는 미군범죄를 막고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실천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했다.

민간형 망심수후회회 명에 회장 권오현은 미군에 의한 범죄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계속되어왔다고 규탄하였다.

그는 온갖 악행과 범죄를 저지르며 우리 민족에게 불행만을 강요하는 미군을 불행범 남조선에서 철수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본사기자

강점군이 있는 한 재난에서 벗어날수 없다

최근 남조선에서 내외호전세력들의 북진정쟁발장난소동이 격화되는 속에 미군의 치밀리는 범죄행위가 꼬리를 물고 일어나 물의를 일으키고있다.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의 맥주집에서 동두천 미군부대의 병사가 건물안의 시설들을 부시며 란동을 부리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남조선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로부터 2시간 후에는 범죄행위로 체포된 남조선주둔 미군병사자 경찰을 계단에서 밀치고 출입문 문고리를 부시며 란동을 부리었다.

이보다 앞서 16일에는 남조선주둔 미군병사들이 경기도 동두천시시의 한 주민에게 집단구타를 하는 참범이 벌어졌다.

련이는 미군범죄는 올해에 들어와 이적뿐이 아니다.

2월 2일에는 미군병사들이 무리로 지하전동차안에서 20대 녀성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으며 3월 2일에 3명의 미군병사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총을 쏘아대며 란동을 부리다가 사건현장에 나란 경찰을 승용차로 깔아뭉개고 황금길 도망치면서 여러대의 차량과 2명의 주민을 들이받는 등 흉악한짓을 저지르면서 감행하였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미군을 보면 몸서리치고 소름이친다.》, 《저런 미군 보지 않을 날은 언제일까?》 하는 말이 하나의 유행어로 퍼지고있었다.

더우기 경악을 자아내는 것은 범죄사건에 관여한자들이 사건발생경위에 대해 묻자 《제미삼아 사람을 향해 모의총기를 발사》했다느니, 《취한김에 생각이 안난다.》느니 하면서 뽕뽕스럽게도 저들의 범죄를 정당화하려 하고있는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미군이 주인행세를 하고있는 남조선의 비참한 현실이다.

주지하는바와 같이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한 첫날부터 지금 이 시각까지 남조선인민들을 대상으로 폭행과 란탈, 살인, 강간을 비롯한 각종 범죄행위를 끊임없이 저지러왔다. 남조선인민들이 《까마귀가 울지 않는 날은 있어도 미군범죄가 없는 날은 없다.》고 할 정도로 남조선은 미군범죄의 란무장으로 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등한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에 의해 미군범죄자들에게 대한 처벌은 거의나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2008년부터 2012년사이 미군범죄는 공개된것만 해도 2000건에 달하였지만 구속된 경우는 불과 한두건에 지나지 않는다.

미군이 남조선을 강점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남조선인민들에게 입힌 인적, 물질적해해를 총계하면 50조US\$에 육박하고있다고 한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보수당국은 《미군범죄는 경미한 교통사고나 범죄, 당사자간 합의가능한 폭행사건 등 구속수사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떠벌이면서 오히려 미군의 범죄를 비호두둔해주고있다.

10대 녀학생에 대한 미군의 성폭행만으로도 온 남조선명이 들끓고있던 2011년 10월 리명박역도가 미국상선의 회담에서 이에 대해 단 한마디도 비치지 않아 민심의 규탄을 받은것은 그 한 실례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남조선의 천미사대매국도들은 저들이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할 경우 미국의와 《련합적국의 효률성이 떨어진다.》느니, 《방위태세약화가 우려된다.》느니 하면서 《전시작전전환연기》와 미군의 계속주둔을 애걸해나서고있다.

그러나 미군은 갈수록 더욱 오만해지고 미군범죄가 없어질수 없는것이다.

현실은 침략군, 강점군에 지나지 않는 미군이 남조선에 계속 남아있고 미국에 아무 잘못도 없는 민족의 존엄과 리의를 마구 팔아먹는 천미사대매국도들이 권력의 자리가 없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떠벌이면서 오히려 미군의 범죄를 비호두둔해주고있다.

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남조선의 각계 시민단체들과 인민들도 《미군범죄의 근본적 해결방법은 남조선미국 《행정협정》(SOFA)개정이 아닌 미군철수가 답》이라며 《온갖 악행과 범죄를 저지르며 우리 민족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위협하고 만행을 자행한 미군은 하루속히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저주와 울분을 터뜨리고있다.

강도가 집안에 있으면 집주인들이 발원함을 잘수 없다. 지금 남조선의 땅과 하늘, 바다에서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대규모적인 북침정쟁은 승리로 인해 전쟁위험이 날로 커지고 남조선인민들이 극도의 불안과 전쟁공포에 시달리고있는것도 우연한것이 아니다.

남조선인민들이 불행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침략과 살육을 기일로 하고있는 미군을 내쫓는 길이다.

본사기자 리광성

